

2026년 10월 30일 배포 / 총 4쪽, 사진 1매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김현웅 실장

전화 : 02-3459-2801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구본원 차장

전화 : 02-3459-2957

발명가에서 기업을 이끄는 '발명경영인'으로... 2기 새 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경영인 과정 2기 개강식』 -



<사진설명: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발명경영인 2기 참여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는 10월 29일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발명마루에서 「발명경영인 과정 2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발명경영인’은 발명에서 출발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인을 뜻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명경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제1기 과정에서는 10명의 발명경영인이 1년간 발명·지식재산·기업경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지난 9월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2기에는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업을 발명으로 성장시킨 14명의 기업인이 새롭게 참여한다.

2기에는 트렉스타 권동철 대표, 범일산업(주) 신영석 대표, (주)비전테크 이호석 대표, (주)씨에스텍 이재선 대표, (주)이화산업사 이석진 대표, (주)태영팬가드 정길용 대표, (주)글로벌에스텍 최원주 대표, 이엠코어텍(주) 김진국 대표, (주)에이스인벤터 정영수 대표, 코트그린농업회사법인 김유겸 대표, (주)머스카 김은경 대표, (주)닥터오레고닌 최선은 대표, (주)뉴아이 김동현 대표, 튜비콘 박제현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기능성 신발, 무감전 차단기, 창호시스템, 태양전지, 농업자재,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발명과 기술을 제품과 사업으로 발전시켜 온 기업인들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기에서 형성된 교류 기반을 2기로 확대해 기수 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발명경영인 간 기술 융합과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발명경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제1기 활동 영상 상영과 함께 ‘발명과 제품혁신 방법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구자용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과가 커질수록 기업인이나 창업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출발점에 있었던 ‘발명가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져 왔다”며 “이들을 다시 ‘발명경영인’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사업과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